가족형태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권미란*, 류대현**, 신승중**
*나사렛대학교 학술정보관, **한세대학교 IT학부
e-mail:expershin@hansei.ac.kr

The Effects of the Internet Addiction of the Youth according to the Types of Family

Mi-Ran Kwon*, Dae-Hyun Ryu*, Seung-Jung Shin*
*Dept of Academic Information Center, Korea Nazarene University, **Dept of IT, Han-Sei University

요 약

가정은 인간의 출생과 더불어 최초로 소속되어지는 공동체이며 최초의 교육의 장이다. 인간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초기 환경이 중요한데 여러 환경요인 중에서도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정환경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의 형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 대인관계 그리고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가족의 형태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와 부적응 행동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도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가족의 형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은 부(-)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대인관계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정(+)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적응 행동은 인터넷 중독과 같이 가족의 형태와 부(-)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나 부적응행동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검증되었다. 그 결과 대인관계와 부적응 행동요인이 가족형태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1. 서론

가정은 인간의 출생과 더불어 최초로 소속되어지는 공동체이며 최초의 교육의 장이다. 인간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초기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여러 환경요인 중에서도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정환경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정은 가정의 기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붕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정의 붕괴 원인은 이혼, 가출, 별거, 사망 등으로 구조적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와 실직, 부도, 생활무능력, 불성실, 무책임, 생활고 등으로 기능적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국내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자 수는 1,471만 명이며, 인터넷 이용자 수는 만 6세 이상 기준으로 3,482만 명, 이용률은 76.3%로 나타났다.[6]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더욱 심각한 경우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적응 및 가정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3]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인간은 환경 속에 존재하며 청소년들은 특히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므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이라는 가정환경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 부적응 행동과 대인관계가 결손가정과 인터넷 중독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본다.

2. 관련연구

전통적인 가정은 성이 다른 두 사람의 성인과 그들이 출산한 자녀들이 물리적 거주지를 공유하고 상호간에 동일한 목표를 지니는 사회적 체계로 정의된다.[4] 결손가정이란 편부모 가정, 이혼가정, 소년• 소녀가장 가정, 해체가족 등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부모 중 한쪽만 존재하는 편부• 편모 가정뿐만 아니라 양부모 결손가정을 포함한다. 가정은 구조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가치를 전제로 공동생활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결손가정은 구조적 측면의 결함이나 기능적 측면의 결함을

의미한다.

결손가정의 원인이 과거에는 주로 부모의 사망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변화, 그리고 부모의 이혼과 별거의 증가, 미혼모의 증가, 취업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들과의 별거와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형태적 결손가정과 양친이 다 있더라도 양친의 불화, 갈등, 방임, 가정의 부도덕 등의 원인으로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의 상호보장과 심리적 교육이 결여되어 있는 기능적 결손가정이 존재하게 되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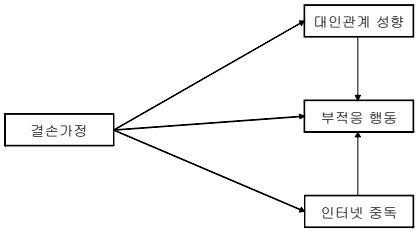
인간관계(human relation)는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심리적인 관계의 모든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는 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 특히 두 사람 사이의 일대일의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와 구별된다.[5]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의 규범에 대하여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1] 즉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통제하여 조화를 이루는 과정, 개체와 환경 간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개인, 가정, 사회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환경과의 부조화, 불균형 상태에 빠짐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적절한 행동, 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일컫는 인터넷 중독의 시발은 1995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Goldberg(1996)[7]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인터넷 중독증(Internet Addiction Disorder : IAD)이라 일컫고 인터넷 상에 인터넷 중독자 지지 그룹 (Internet Addiction Support Group)의 설립을 천명한 것에서 비롯된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앞에서 제시한 결손가정, 인터넷 중독, 부적응 행동, 대인관계 등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선행연구들과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표 1)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표 1> 연구가설

가설	가설내용
가설 1	가족의 형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가족의 형태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가족의 형태는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가족의 형태는 대인관계를 통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가족의 형태는 부적응 행동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결론

경기 지역과 충남지역의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총 400부를 수집하였으나 누락이 존재하거나 이중기재 등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313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가족의 형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은 부(-)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일반가정일 경우 결손가정인 경우보다 인터넷 중독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정(+)의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적응 행동은 인터넷 중독과 같이 가족의 형태와 부(-)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가족의 형태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나 부적응행동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검증되었다. 그 결과 대인관계와 부적응 행동요인이 가족형태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모집단의 대한 표본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으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가족의 형태를 결손가정과 일반가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이 형태적 결손과 기능적 결손을 모두 표현해 주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

[1] 강봉규, "교육심리학", 형성출판사, 1992

[2] 박신희, "협동작업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3] 이계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4] 조흥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 "가족복지학," 학지사, 1997

[5] 한광희,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6] 한국인터넷 진흥원, "2008 한국인터넷 백서," 2008.

[7] Goldberg,(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1985, http://www1.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